

# “광주·전남 전파 산업 중심지 만들겠다”

개원 50주년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원장  
전파는 통신·방송·가전·교통·의료 등  
일상 생활에 이용되는 핵심 자원  
기업 기술지원·대학 연계 인재 양성  
내달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도



“광주·전남지역을 전파 관련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동지를 틀고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원장은 지역민과 소통을 강조했다.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전개해 나가고 인근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966년 단파통신 예·경보 업무를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문을 열었다. 이후 청사를 서울로 옮긴 뒤 지난 2014년 7월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해 왔다.

유 원장은 “나주에서 개원 50주년을 맞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2년이 흘렀다”며 “이제는 전파연구원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해부터 고가의 전자파 시험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전자파 시험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기술지원을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 LED업체와 가전제품 업체 등 33개 중소기업이 전자파 시험장비와 관련 기술을 지원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전자파 기술지원 내실을 갖추기 위해 현장에서 지역 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광주청초경 제혁신센터 등 관련기관과 ‘광주·전남지역 전자파 기술 지원 추진단’도 구성했다.

유 원장은 “빛가람혁신도시는 한전을 중심으로 예나

지 관련 기관들이 모여 ‘에너지벨트’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우정정보센터, 내년 이전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보통신산업 벨트’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전파연구원이 그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4개 기관이 공조하고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광주·전남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한 마디 꺼냈다. 현재 전파·방송·통신분야 전문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나주에 관련 기관이 이전하면 만큼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통신대와 조선대, 전남대, 육군공병학교

등 지역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산·학·연 협력체계를 만들어 각종 위원회나 기술기초 연구반 등 광주·전남지역 전문가 참여 비중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아쉬운 점도 있다. 유 원장은 “반세기 동안 국가 연구기관으로 전파분야 연구와 업무를 확장해 왔는데, 아직 국립전파연구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가까이는 일상생활 속 전자파에서, 멀리는 우주전파까지 전파의 모든 것을 다루는 연구기관”이라고 요약했다.

전자파는 통신(스마트폰·무선인터넷), 방송(라디오·TV), 가전제품(전자레인지), 교통(내비게이션·하이패스), 의료(MRI·X-ray) 국방(지뢰탐지·레이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핵심자원이다. 만물인터넷(IoT)나 인공지능 탑재로봇, 가상현실, 드론(무인항공기) 등 전파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파연구원은 이런 전파자원 발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국가기관이다.

여기에 한국은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등 전자파 사용이 많은 국가다. 그만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고출력 전자파 (EMP) 공격을 받으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한다. 전파의 활용에 필요한 각종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국가표준체제도 마련한다.

유 원장은 “혁신도시 이주 2년간 지역상생과 지역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무엇보다 전파연구원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릴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 속 전자파와 전자파 발생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안전교육에도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6월말 개원 5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광주·전남지역에 협력기반 환경을 조성해 지역과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T는 지난 25일 ‘2016 방콕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호텔체인 그룹 두짓타니 인터내셔널과 청년 일자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T 제공>

## aT-태국 호텔기업, 청년 일자리 힘 모으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대책에 부응하고 식품산업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이번에는 글로벌 식문화 메카이자 관광·외식산업의 트렌드 선도 국가, 태국을 공략 중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2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 최대의 식품박람회인 ‘2016 방콕식품박람회’(2016 Thaifex) 내 한국식문화 홍보관에서 태국의 글로벌 호텔체인 그룹인 두짓타니 인터내셔널과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기반 조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우수한 인재’(Good Job, Good people)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 세계 40개 대형호텔을 보유한 두짓타니 호텔에 대한 민국의 우수한 식품인재를 본격적으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돼 해외진출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두짓타니 호텔의 수석 요리사와 한국유학생, 그리고 태국 대학생들이 한국과 태국의 대표 유명음식을 활용한 퓨전 비빔밥을 만들어 박람회장 참가객에게 나눠주는 순서를 진행해 현지 유명인사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한국의 대표음식 비빔밥이 상징하는 융합의 의미를 태국과 대한민국의 일자리 교류로 표현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aT 유종식 수출이사는 “이번 태국 최대 호텔체인 두짓타니와의 일자리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게 되었다”라며, “aT는 향후 태국에 이어 전 세계 주요 기업들과의 일자리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콘텐츠진흥원, 웹진 ‘융복합 콘텐츠’ 창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은 ‘융복합 콘텐츠’ 창간호를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융복합 콘텐츠 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대내외적으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성공사례나 산업적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한 자료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관련 업계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융복합 콘텐츠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이슈를 분석 정리한 월간 온라인 리포트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0회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창간호는 업계 최신 동향을 다루는 ‘Market Trend Report’와 주요 정보를 간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쪽으로 요약

한 ‘One Page Summary’의 두 색션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색션에서는 ▲ MS 홀로렌즈(HoloLens) ▲ 드론레이싱 ▲ 3D 프린터를 활용한 완구업체 ▲ 게임과 완구의 융합콘텐츠 ‘Toy-to-Life’시장을 융복합 콘텐츠의 네 가지 주요 트렌드로 설정하고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두 번째 색션에서는 ▲ 인터넷 카페에 침투한 가상 현실 ▲ 일본 보컬로이드 캐릭터 ‘하쿠네 미쿠’를 분석·요약하고 관련 인포그래픽도 포함했다.

월간 웹진 <융복합 콘텐츠>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웹사이트(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시장동향/분석’ 게시판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포브스 “한전, 세계 기업순위 97위”

100위 진입 전력기업 중 유일

한국전력은 26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25일 발표한 글로벌 2000개 기업 순위(글로벌 2000)에서 9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2000은 포브스가 매년 상장기업의 매출, 순이익, 시장가치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세계 2000개 기업 명단이다. 한전이 이 평가에서 100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글로벌 전력회사 중에서도 100위권 내 기업은 한전이 유일하다.

한전은 또 전력 유틸리티 부문에서는 아시아 전력회사 중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전이 종합순위 171위, 전력 부문 4위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

면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침체와 수요정체 등으로 수년 간의 전력수급 위기상황과 누적적자를 극복하고 이루어 낸 결과라 의미가 더 크다”며 “이러한 평가가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한전의 위상을 높여 해외사업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2012년까지 5년 연속 누적적자가 11조원에 달했으나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2013년 흑자 전환했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일본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aT, 외식·화훼 등 청년창업 사례 발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aT)는 지난 24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창업지원공간 확산 간담회’에서 ‘aBC 사업을 통한 청년창업지원 사례’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20여명이 참석하여 사례발표 청취와 함께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창업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aT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를 농업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고령 불평 해소와 농식품산업 청년인재 양성 등을 위한 농식품 비즈니스 거점(aBC: agriculture Business Center)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해오면서 농식품분야 청년창업지원과 정부3.0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양재동 aT센터 지하 1층에 조성된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장인 ‘에이토랑(aTorang)’은 3주 간격으로 대학생 창업희망 18개팀(연간)에게 주방시설과 임대료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창업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 화훼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장인 ‘에이티움(aTium)’에서는 6개월 단위로 대학생 창업희망 2개팀에게 실제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수 사장은 “aT는 청년 창업인큐베이팅, 스마트 스튜디오를 통한 농산물 1단계 유통혁신 선도, 농식품 소통공간 aT북카페 운영 등 콘텐츠를 확대 도입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늦깎이라 해도 좋다! **대학생**이라고만 불러다오!

**탁재훈**

**박나래**

**장도연**

**장동민**

**CHANNEL** 매주 토요일 밤 11시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